

중국의 장길도 개발계획과 북중경협의 향방

- 일시 | 2010년 4월 20일 (화) 오후 2:00-5:00
- 장소 | 평화재단 강당
- 주최 | 평화재단(02-581-0581)

● 프로그램 ●

14:00	개 회	
14:05	여는말	법 른 평화재단 이사장
	사 회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14:15	발 표 1	중국의 장길도 개발계획과 북중경협의 향방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발 표 2	최근 북중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윤승현 연변대학교 경제관리학원 교수
14:55	토 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백성호 동춘향운 회장
15:10	질의응답	
15:30	휴 식	
15:45	전체토론	
16:50	닫는말	법 른 평화재단 이사장
17:00	폐 회	

● 차 례 ●

03 모시는 글

05 발 표 1 중국의 장길도 개발계획과 북중경협의 향방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19 발 표 2 최근 북중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윤승현 연변대학교 경제관리학원 교수

평화재단 제38차 전문가포럼
중국의 장길도 개발계획과 북중경협의 향방
퍼낸날 2010년 4월 20일 | 퍼낸곳 재단법인 평화재단 |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93-7 서초이오빌2층
(우 137-875) | 전 화 02-581-0581 | 전송 02-581-4077 | staff@peacefoundation.or.kr |
www.peacefoundation.or.kr

중국의 동북지방 개발계획과 북중 경제협력방향은, 한편으로는 북한 경제의 성장방향과 한반도 통일에 있어 여러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조중협력이 북한 경제에 있어 한국과 같은 중속발전을 통한 자기동력 회복으로 이어질 것인지, ‘중국의 동북 4성’으로 중속적 위치에 그치게 될지 그 향방에 따라 앞으로의 한반도 통일미래 그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화폐교환 조치 이후, 북한은 부족한 공급물량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의 적극적 경제협력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2년 7.1 경제조치를 통해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대북경제제재는 지속되고 있고 남한에서의 경제적 지원은 끊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중국의 협력없이 현재 북한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해결할 길은 요원합니다.

현재 중국은 북한의 제 1 무역대국으로서 북한 대외교역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중 교역의 200여 상품 중 북한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은 9개 정도에 불과, 극도의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따리, 밀무역 등의 변경무역을 비롯하여 중국의 북한투자는, 광산채굴, 항만시설 등 인프라구축에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시장에서의 중국 상품의 점유율이 거의 9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폭등하는 시장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내에서의 중국상품의 시장점유율과 영향력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당국은 장춘-연길-도문을 연결하는 장길도 개발계획을 비롯해 동북 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대중의존도는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개발계획과 조중 경제협력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과 차분한 진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0년 4월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 윤여준

중국의 장길도 개발계획과 북중경협의 향방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I. 북한 핵실험 이후 주요 북중 관계상황

II. 중국의 장길도개발계획과 북중관계

중국의 장길도 개발계획과 북중경협의 향방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I. 북한 핵실험 이후 주요 북중 관계상황

◦ 2009년 7월 1일 중국 국무원은 『료령연해경제대발전규획(遼寧沿海經濟帶發展規劃), 이하 료령연해경제벨트』을 국가전략으로 정식 비준

- 경제발전전략의 핵심은 ‘1핵 1축 양의모델’로 대련을 핵으로, 대련-영구-반금은 주축으로, 반금-금주-호로도 발해연안(발해익)과 대련-단동-황해연안(황해익)은 양 날개로 한다는 구상인데, 료령성 발전개혁위원회 조희정부주임은 그 전략적 의의를 ①북방연해지역의 발전수준을 한 단계 진전시키고, ②중국 동북지역과 환발해지역을 상호 융합시키는 한편, ③동북아지역 국가간 경제협력의 확대라고 언급

◦ 2009년 8월 28일 중국의 4개 민영기업(대련만달그룹, 중국범해그룹, 내몽골역리자원그룹, 료녕일방그룹)은 백두산관광단지(중국어: 장백산국제관광휴가구) 건설을 위한 착공식을 진행

- 백두산관광단지는 중국 최대관광투자대상으로 부지면적은 약 30평방킬로미터, 건설용지는 약 10평방킬로미터, 총투자액은 200억 인민폐라고 길림신문이 보도

◦ 2009년 8월 30일 중국 국무원은 『장길도 개발개방 선도구를 위한 중국의 두만강구역 합작개발 규칙 요강(以長吉圖爲開發開放先導區的中國圖們江區域合作開發規劃綱

要), 이하 장길도』을 국가전략으로 정식 비준

- 2007년 8월 중국 길림성이 『장길도 선도구』 계획을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온가보(溫家寶) 총리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통일적 연구**를 하도록 지시하면서 구체화되었는데, 그 중요한 출발점은 2007년 1월 18일 호금도(胡錦濤) 총서기의 길림성 방문에서 “길림성은 노공업기지 진흥에서 조건이 되는 지역을 선택하여 개혁개방과 과학기술을 강화하고 선행하여 길림성의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언급이었음

◦ 2009년 9월 1일 연변 화룡과 남평을 잇는 철도공사 착공식이 진행되었다고 연변조선족자치주 관계자가 언급

- 료령신문(2009.10.27)에 의하면 중국 국가철도부와 길림성 정부는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인민페 11억 9천만 위안을 투자하며 공사노선은 41.68km인데, 동 노선은 북한 **무산광산에 대한 대규모투자**에 대비해 **사전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성격**이라고 언급

◦ 2009년 9월 9일 중국 국무원은 동북노공업기지 진흥전략 “28조”를 발표(국무원의 동북지역 등 노공업기지 진흥전략 더한층 실시에 관한 약간 의견; 國發[2009] 33號)

- 총 9항 28조로 구성된 동 의견 발표내용 중 6조는 장길도 경제구 발전의 가속화를, 28조는 장길도 선도구 개방개발 추진의 가속화를 강조

◦ 2009년 9월 18일 중국 호금도 주석의 특사인 대병국 국무위원은 김정일을 예방하고 호금도 주석의 친서를 전달

- 호금도는 친서를 통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증진하는 것은** 중국의 일관된 목표”이며 “중국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선측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있다”는 견해를 표시

◦ 2009년 10월 5일 북한 김정일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국무원 온가보 총리를 접견

- 4일에는 「조선정부와 중국정부사이의 조약정리에 관한 의정서」, 「경제원조에 관한 교환문서」,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교육기관사이의 교류 및 협조에 관한 합의서」, 「소프트웨어산업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에 관한 량해문」, 「국가품질감독기관사이의 수출입품공동검사에 관한 의정서」, 「**중국 관광단체의**

조선관광실현에 관한 량해문」, 「야생동물보호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합의서」 등이 조인되었는데, 특히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에 포함된 **압록강대교신설은 2010년 2월 25일** 「조선정부와 중국정부사이의 압록강 국경다리 공동건설과 관리에 관한 협정」이 **단동에서 정식으로 체결**되면서 구체화

◦ 2009년 10월 28일 중국 호금도는 조선노동당대표단(단장: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을 접견한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초청

- 조선노동당 대표단은 29-30일 양일간에 걸쳐 광주, 심천 등 광둥성을 방문

◦ 2009년 11월 18일 중국 국무원은 국내외 언론보도발표회를 통해 중국 「장춘-길림-두만강지역을 개발개방선도구로 하는 두만강지역합작개발전망계획요강」을 정식 반포

- 계획요강에 따르면 길림성 장춘시와 길림시의 일부지역, 그리고 연변조선족자치주, 즉 **장길도가 중국 두만강지역의 핵심지역**

◦ 2009년 11월 25일 북한 김정일은 중국 국무위원겸 국방부장인 양광렬을 접견

- 대표단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심양군구 정치위원인 황현중 상장, 제남군구 부사령원인 풍조거 중장 등이 포함

◦ 2009년 12월 1일 중국 길림성 11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는 중국 중앙당 결정에 따라 왕유림을 길림성 대리성장으로 선출

- 11월 5개성, 자치구 주요책임자 인사에서 중국 공산당은 왕민 길림성 당서기를 요령성당서기로, 농업부 부장 손정재를 길림성 당서기로, 하북성 당부서기 호춘화를 내몽골자치구 당서기로 임명

◦ 2009년 12월 16일 북한 김정일은 ‘라선시’를 현지지도

- 동 현지지도에서 김정일은 “라선시는 중요한 대외무역기지의 하나이므로 전망성 있게 잘 꾸리고 시의 당행정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언급

◦ 2009년 12월 18일 북한은 라선시에 남북합작기업인 철보산매리합작회사(통조림가공사업)의 기업창설을 승인했다고 2010년 2월 12일자 조선신보가 언급

- (주)매리는 **북남경제협력법에 따라** 2009년 9월 30일 북한의 개선총회사(사업파트너는 라선강성무역)와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11월 18일 기업창설승인서를 취득하였는데, 라선특구는 1998년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라선경제무역지대로 지위가 변경된 이후 남한기업의 직접진출이 허용되지 않았던 지역이었음

◦ 2010년 1월 4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을 통해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

- “라선시를 특별시로 하며, 내각과 해당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

◦ 2010년 1월 20일 북한은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이사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개발은행의 설립을 발표

-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명령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 활동을 보장할데 대하여」, 국방위원회결정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함에 대하여**」,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조정위원회를 설립함에 대하여」를 전달하고 이사장으로 김양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을, 상임부이사장겸 총재로 재중동포 박철수를 선출하며 그룹규약초안, 그룹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재정예산안, 국가개발은행설립준비위원회 가동에 관한 결정서 등을 의결

◦ 2010년 1월 27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을 통해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

- 법의 사명이 종전의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효과적 관리운영’에서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사업의 개선’으로 바뀌었으며, 특이사항은 ①투자형식과 기업관리방법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투자자에게 보장하고, ②중앙에 라선경제무역지도기관을 신설하며, ③공업구, 농업구, 과학기술구, 가공무역구 등 특수경제구의 설립을 허용한 것, ④비상설로 라선경제무역지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등

◦ 2010년 2월 8일 북한 김정일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인 왕가서를 접견

- 호금도는 구두친서에서 “중국의 당과 정부는 중조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전통적인 우의를 한 단계 더 심화시키고 **실무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을 희망**”하고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할 것을 제의”**

◦ 2010년 3월 6일 중국 리룡희 연변조선족자치주 주장은 전인대 길림대표단 분조심 의에서 ‘장길도계획요강’의 시험선행(先行先試) 규정에 따라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연변시로 조정할 의사**를 표명

- 연변시는 산하에 3개구와 5개 현시를 두며, 연통도를 120만명 규모의 도시로 건설한다는 것이 골자

◦ 2010년 3월 10일 북한은 조선국가개발은행 이사회 1차 회의를 평양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개최

- 「국가개발은행 설립할 데 관한」 국방위원회 결정을 전달하고 **국방위원회 대표 전일춘(39호 실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하며 국가개발은행 규약, 운영방안, 2010년 재무예산초안 및 전문가위원회규약과 경영기구방안 등이 통과되었는데, 동 규약에 따르면 ①**국가재정예산외에 자금을 모금**하며, ②국가경제정책에 따라 실시하게 될 주요 건설대상에 직접투자하고 동 건설대상에 자금면의 담보를 제공. 그리고 국가개발은행은 주식제은행으로 등록자금은 100억 달러로 자금출자는 북한정부가 90%,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이 10%를 담당

◦ 2010년 3월 15일 북한 라선특별시 인민위원회와 중국 훈춘시정부는 중국 권하-북한 원정간 다리보수공사의 착공식을 거행

- 1938년에 건설된 권하-원정다리의 중국측 구간은 2001년 보수공사가 진행되었으나 북한측 구간은 북중간의 이견으로 그동안 공사가 지체되었으나 **보수공사비용 360만 인민폐를 중국 훈춘시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타결

II. 중국의 장길도개발계획과 북중관계

(중국의 장길도 구상)

◦ 2010년 4월 길림대학 우하오(Wu hao) 교수는 ‘장길도’ 설립의 전략적 목표는 ①연변지역 개발개방의 새로운 모델 모색, ②동북노공업기지 진흥의 진일보 추진, ③동북아지역협력의 진일보 촉진, ④길림성 사회경제발전의 가속화라고 언급

- 또한 ‘장길도’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은 1)자체 내부건설계획(공간배치, 산업발전, 기반시설, 환경보호) 2)중국 국내 기타지역과의 연동개발계획, 3)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에의 참여, 4)건설가속화의 보장장치로 구성되며, 특히 TRADP참여계획에는 ① 러시아 및 북한과 인접지구의 기반시설건설협력(항구, 철도, 도로, 교량 등), ②중몽 골든루트건설계획 등이 포함<표> 1, <표 2>, <그림 1> 참조)

<표 1> ‘장길도개발개방선도구계획’ 의 개요

구분	주요내용
대상지역	- 장춘시의 부분적 지역(장춘시 도시지역, 덕혜시, 구태시와 농안현), 길림시의 부분적 지역(길림시 도시지역, 교하시와 영길현), 연변조선족자치주 등 7만 3,000평방킬로미터가 그 대상으로 길림성면적의 39%를 차지(인구는 1,090만명으로 40%)
발전목표	- 1단계(2012년까지): 2008년 경제총량(3,640억 위안)의 2배, 삼림피복률 60% 이상유지 - 2단계(2020년까지): 경제총량의 4배 이상, 삼림피복률 68% 이상유지
개발구도	- 훈춘을 창구로, 연길-용정-도문(연룡도)을 최전방으로, 장춘-길림을 엔진으로, 동북후배지를 버팀목으로 한다는 구상
8대 중점공정	-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지대 건설, 장길도 국제내륙항구 건설, 과학기술 창조지역 건설, 국제협력산업지역 건설, 현대물류지역 건설, 생태여행지 건설, 최첨단 서비스업 집중지역 건설, 현대농업모범지역 건설

<표 2> “선도구전망계획요강” 관련 100개 중점건설대상: 대외통로부문

프로젝트명	프로젝트개요	건설기한	추진체제
22. 팔도에서 삼합을 경유하여 청진에 이르는 고속도로 경내구간	길이 47킬로미터, 총투자 28억 위안	2015년	대상실시구역에는 연길, 룡정이 들며 주교통운수국에서 책임지고 주통상구관리관공실과 관련 현, 시 정부에서 협력
23. 훈춘에서 권하를 경유하여 라진에 이르는 고속도로 경내구간	길이 39킬로미터, 총투자 23억 위안	2015년	대상실시구역에는 훈춘시가 들며 주교통운수국에서 책임지고 주통상구관리관공실과 관련 시정부에서 협력
24. 화룡에서 남평을 경유하여 청진에 이르는 고속도로 경내구간	길이 50킬로미터, 총투자 30억 위안	2015년	대상실시구역에는 화룡이 들며 주교통운수국에서 책임지고 주통상구관리관공실과 관련 시정부에서 협력
25. 훈춘에서 장령자를 경유하여 블라디보스톡에 이르는 고속도로	길이 14킬로미터, 총투자 8억 위안	2015년	대상실시구역에는 훈춘시가 들며 주교통운수국에서 책임지고 주통상구관리관공실과 관련 시정부에서 협력
26. 도문(중국)-남양(조선)-두만강(조선)-햇산(러시아)철도 합작개조대상	길이 126킬로미터, 총투자 24억 3000만 위안	2020년	대상실시구역에는 중국 도문-조선 남양-조선 두만강-러시아 햇산이 들며 주통상구관리관공실에서 책임지고 도문시정부에서 협력
27. 중국-조선 청진철도합작개조(청진항사8)대상	길이 171.1킬로미터, 총투자 20억 위안	2020년	대상실시구역에는 중국 도문-조선 청진이 든다. 주통상구관리관공실에서 책임지고 도문시정부에서 협력
28. 화룡에서 남평을 경유하여 조선 무산에 이르는 철도	길이 53.5킬로미터, 총투자 16억 위안	2015년	대상실시구역에는 화룡시가 들며 주통상구관리관공실에서 책임지고 화룡시정부에서 협력
29. 중국 도문-조선 라진 철도합작개조대상	길이 158.8킬로미터, 총투자 12억 7000만 위안	2020년	대상실시구역에는 중국 도문-조선 라진이 든다. 주통상구관리관공실에서 책임지고 도문시정부에서 협력
30. 룡정 개산툰 철도통상구 건설대상	철도길이 2.5킬로미터, 철교 복구건설, 총투자 1억 5000만 위안	2020년	대상실시구역에는 룡정시 개산툰-조선 삼봉이 든다. 주통상구관리관공실에서 책임지고 룡정시정부에서 협력
31. 권하, 도문, 사타자, 개산툰, 삼합, 남평 통상구다리건설대상	총길이 2152미터, 총투자 5억 위안	-	대상실시구역에는 훈춘, 도문, 룡정, 화룡이 든다. 주교통운수국에서 책임지고 주통상구관공실, 관련 현, 시 정부에서 협력
32. 훈춘문화분수령통상구 건설대상	문화분수령통상구 개척, 총 투자 2억 위안	2020년	대상실시구역은 훈춘시이며 주통상구관공실에서 책임지고 훈춘시정부에서 협력
33. 중로인접지역교통기초시설합작대상	훈춘철도통상구 확건, 총투자 3억위안	-	대상실시구역은 훈춘시이며 주통상구관공실에서 책임지고 훈춘시정부에서 협력

〈그림 1〉 ‘장길도’와 ‘요령연해경제벨트’



김토일 기자 kmtol@yna.co.kr / 20091117

◦ (잠정평가): ‘요령연해경제벨트’와 ‘장길도’의 국무원 비준, 온가보 총리의 방북에 이어 중국 국무원이 “장길도(장춘-길림-도문)를 개발개방선도구역으로 하는 중국두만강지역합작개발전망계획요강”을 공개한 것은 2002년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동북진흥계획이 한 단계 더 심화됨을 의미

- 중국두만강지역개발, 동변도철도, 새로운 압록강대교 부설, 요령연해개발지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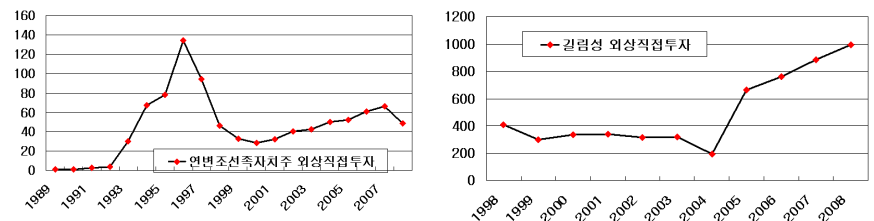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중국의 개발개방구상은 전방위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경제벨트를 형성하여 자연스럽게 북한경제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인데, 이는 중국의 대북한정책이 종래의 지정학적 접근을 넘어 지경학적 접근에 바탕을 두고 동북진흥(흑룡강성의 하다치공업벨트, 길림성의 장길도개발개방선도구, 요령성의 요령연해경제벨트), 달리 말해 넓은 범위에서의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축을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음을 시사

(연변조선족자치주경제와 ‘장길도’개발)

◦ 1990년 7월 중국이 훈춘(琿春)개발계획을 발표한 이후 TRADP사업은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미래였으나, 1)TRADP개발의 중심대상이 소삼각에서 대삼각으로,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초기의 공동개발의 이상이 크게 퇴색하고, 2)1998년 이후 북한의 라진선봉지역개발 방기와 남한의 북방정책 퇴조가 이루어지면서, 3)그리고 중국 중앙정부의 무관심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경제는 국제적 관심으로부터 배제

- 2002년의 동북진흥계획, 2005년 장춘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새로운 對TRADP 전략의 가시화는 동 지역에 대한 외자유치를 성장세로 만들었으나 <그림 2>가 시사하듯이 연변조선족자치주와 길림성간의 성장간격은 확대되는 추세이며, 기존의 훈춘개발구에 이어 ①백두산관할권의 길림성으로의 이전, ②연룡도(延吉-龍井-圖們) 일체화 계획 등을 중국 정부가 추진하면서 연변조선족자치주경제는 사실상 연길, 백두산, 훈춘으로 삼분

〈그림 2〉 연변조선족자치주와 길림성의 외자유치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출처: 연변조선족자치주 상무국 및 길림성 통계공보.

◦ **(잠정평가):** ‘장길도’개발은 중국 국가급 발전전략이라 연변조선족자치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나 1)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환발해구역에 이어 중국경제성장의 4극체제로 편입된 동북지구의 중심은 하얼빈-장춘-심양-대련축이고, 2)동북지구(흑룡강성의 하다치, 길림성의 장길도, 요령성의 연해경제벨트)중 ‘장길도 개발’을 중국 정부가 중점 추진한다고는 하나 그 중심은 장춘-길림이며, 3)그 성공여부는 북한 및 러시아의 협조라는 점에서 한계

- 최근 연변조선족자치주 리용회 주장이 ‘장길도계획요강’의 시험선행(先行先試) 규정에 따라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연변시로 조정할 의사를 표명한 것은 ①‘장길도개발’의 전략적 목표중의 하나가 연변조선족자치주 해체이며, ②2009년 온가보 총리의 방북을 전후로 만리장성의 동단(東端)을 단둥(丹東) 호산성(虎山城)으로 당기고, 요령성 본계시(本溪市) 박물관의 제3소주제관을 통해 연(燕)장성의 동단과 한사군의 위치를 청천강까지 확장한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힘을 싣는 조치로 평가

(북중경협과 동해로의 출해구)

◦ 온가보 총리의 방북을 전후로 하여 언론에 표면화된 북중경협의 세 가지 주요한 흐름은 1)중국의 나진항 1호 부두 사용권 확보, 2)백두산관광단지 건설과 화룡-남평철도 건설, 3)신압록강대교 건설과 단둥화상해외투자유한공사(丹東華商海外投資有限公司)의 위화도-황금평 개발협상 진행 등임(<그림 3> 참조)

- 온가보 총리의 방북(2009.10)이후 중국 호금도는 최태복(2009.10.28), 왕가서(2010.2.8) 등을 통해 김정일 방중을 초청했으나 북한 김정일은 ①라선시 현지지도(2009.12.16), ②라선시 특별시 승격(2010.1.4), ③국가개발은행 설립 발표(2010.1.20), ④라선경제무역지대법 개정(2010.1.27), ①국가개발은행 이사장 임명(전일춘 39호 실장: 2010.3.10) 등으로 중국측에 화답하면서도 중국방문은 장교

<그림 3> 북중 접경지역의 주요 경제협력사업



김도일 기자 kmil01@yna.co.kr / 20100223

출처: 연합뉴스, 요령신문 및 (주)메리



◦ TRADP(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사업이 시작된 이후 동해로의 출해구, 특히 나진항 확보는 중국 정부 및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의 숙업사업으로 등장

- 훈춘-나진-부산(컨테이너 항로: 주1항차)항로는 1995년 10월, 훈춘-자루비노-속초(카페리항로: 주3항차)항로는 2000년 4월, 훈춘-자루비노-니이가타-속초 카페리항로는 2009년 7월 등 항로개통에는 성공

◦ 온가보 총리의 방북직후 대련의 창리(創立)그룹이 2008년 나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확보했으며, ①나진-청진항의 공동개발방안, ②중조 접경지역 다리 보수와 ③나진-청진항에 이르는 도로건설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한창푸(韓長賦) 성장을 단장으로 하는 길림성 정부대표단이 2009년 10월 26-27일 북한을 방문했다는 언론보도 등장

- 중국은 2004년 11월 길림천우건설집단(정규상 사장)을 통해, 2005년 7월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대표: 范應生, 판잉성)를 통해 각각 동일한 성격의 프로젝트인 라진-훈춘간 도로개보수와 라진항만 배후공단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실패

◦ (잠정평가): 기존 대련항로에 대비한 카-웨리노선의 운임절감과 운송기간단축, 그리고 이미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요령성 연해항만들의 수용능력을 감안할 때 **길림성과 흑룡강성 공업벨트의 성장은 북한의 청진과 나진, 러시아의 자루비노 등 항만에 대한 접근과 항만의 수용능력에 의해 좌우**(〈표 3〉 참조)

- 최근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개정(2010.1.27) 에서 주목할 것은 법의 사명이 종전의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효과적 관리운영'에서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사업의 개선**'으로 바뀌었으며, 특이사항은 ①투자형식과 기업관리방법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투자자에게 보장하고, ②라선경제무역지대위원회에 비상설 운영과 함께 중앙에 라선경제무역지대기관을 신설하며, ③공업구, 농업구, 과학기술구, 가공무역구 등 특수경제구의 설립을 허용한 것 등 **P**

〈표 3〉 중국 길림성-일본 니이가타 지역 물류비 비교

구분	기존항로(컨테이너선)		신규항로(카-웨리선)	
운송로	훈춘~대련~부산~니이가타		훈춘~자루비노~니이가타~속초	
경유항	대련항, 부산항		자루비노항	
컨테이너 종류	20피트	40피트	20피트	40피트
운임	1,593 달러	2,584 달러	1,000달러	1,800달러
운송기간	14일		1.5일	

출처: 동춘함운

〈참고자료〉 자유경제무역지대시절의 라선국토건설 총계획도



최근 북중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윤승현 연변대학교 경제관리학원 교수

I. 서론

II. 북중 무역구조의 변화와 특징

1. 북중 무역의 변화 추이
2. 북중 수출입 품목구조의 변화
3. 북중 무역구조의 특징

III. 북동북3성 무역구조의 현황과 특징

1. 북동북3성 무역의 변화 추이
2. 북길림성 무역구조의 변화
3. 북동북3성 변경무역의 현황
4. 북동북3성 무역구조의 특징

IV. 북중 무역관계 확대의 영향과 남북경협

1. 북중 무역관계와 비교된 남북경협의 현황
2. 북중 무역관계 확대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3. 북중 무역관계 확대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V. 결 론

최근 북중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윤승현 연변대학교 경제관리학원 교수¹⁾

논문 요약

최근 북중 무역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은 2005년부터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교역 제외)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2008년에는 73%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중 무역 관계는 과거의 단순 교류 및 중국의 대북 지원과 같은 차원을 넘어서서 양국간 경제관계 확대를 위한 제도적 협력을 모색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와 같이 북중 무역관계의 확대에 의해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북한경제의 중국 예속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향후 어떤 이유에서든 대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이 북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지대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중 무역관계의 확대는 북한경제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에 있어서도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경협은 북중 무역관계의 확대를 경계하고 이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북중 무역관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어 동북아 역내 협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동북아경제공동체가 구축되어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핵심 주제어: 북중 무역, 동북3성, 변경무역, 남북경협

* 한국수출보험학회 제21차 정기학술대회(2009.9) 발표논문을 수정 보완하였음.

1) 중국 연변대학교 경제관리학원, 길림대학교 동북아연구원 교수, E-mail: chinayoon@naver.com

I. 서 론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사태와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선언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개성공단 문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 1874호 채택 등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남북경협은 물론 한반도 전체가 새로운 고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한편으로 안보리의 1718호 보다 더욱 강력해진 대북결의로 인하여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되는 압력은 훨씬 높아졌지만 제재안이 구체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5자 협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북 제재에서 국제사회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중국이 상시(常時)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한 자국내 내수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일부 수출품목(쌀, 밀, 콩 등 곡물류와 화학비료, 철강재 등)에 대한 임시 관세를 2009년 7월부터 전면 취소하였으며, 쌀 등 곡물류를 비롯한 비료 등은 북한의 식량 증산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국의 이러한 조치가 반드시 대북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핵 실험 이후 유엔의 제재 조치로 곤경에 처한 북한의 경제상황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이외에도 중국은 대북 관광 및 접경무역 등을 2차 핵실험 이후에도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북한의 경제상황을 판단해 가며 중국의 대북정책을 연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비록 유엔 제재에는 동의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중국을 대신해 극동을 방어해주는 중국에 있어 순망치한(唇亡齒寒)의 존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핵실험 등을 둘러싼 북한의 행위가 중국에 있어 못마땅한 것은 사실이나 한-미-일 동맹에 의해 북한이 완전히 고립되게 놓아 둘 수 없는 게 중국의 입장이자다.

중국은 1990년대 초부터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2005년부터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교역 제외)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중 경제관계는 2005년에는 북중간 ‘투자 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에 합의(2006년 1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김정일 총서기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주도, 기업참여, 시장운영’의 경제협력 방향 제시)하면서, 과거의 단순 교류 및 중국의 대북지원과

같은 차원을 넘어서는 양국간 경제관계 확대를 통한 제도적 협력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북3성의 개발을 위하여 동북진흥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대한 인프라를 확대하여 북한과의 물리적인 연계성을 제고해 경제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고자 한다.

최근 들어 중국 국무원에서 ‘요녕성(遼寧省) 연해경제벨트 계획’을 국가사업으로 승인(2009. 7. 1)시켜 단둥(丹東), 대련(大連), 영구(營口), 반금(盤錦), 금주(錦州) 등 해안도시를 모두 단일 경제벨트로 묶어 동북진흥 개발계획의 거점으로 하는 동시에 천진(天津)과 빈해(濱海)경제벨트를 결합한 환발해만 전체를 아우르는 초광역 경제블럭 건설을 염려해 두고 있다. 또한 국무원은 ‘길림성(吉林省) 장길도 개발 개방 선도구 계획 개요’를 비준(2009. 8. 30)시켰으며, 동 계획은 중국 정부가 변경지역 14곳 중 첫 번째로 실시하는 개발 계획으로 두만강 지역 개발을 중국의 국가 전략으로 승격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동북아 경제권에 대한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을 찾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동북진흥 개발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발전의 가속화를 위한 동북3성 진흥계획을 국무위원회에서 가결(2009. 8. 18), 발표(2009. 9. 24, 동북노공업기지 진흥전략 28조)함으로써 동북3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지역의 개발 효과가 궁극적으로 북한에 미칠 파급효과는 지대할 것이다. 이로 인해 북중 무역관계 성장에 따른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는 북한경제의 중국 예속을 가져올 수도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북한이 중국 동북지역의 4번째 성(省)으로 전략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중 무역관계의 확대는 남북경협에 있어서도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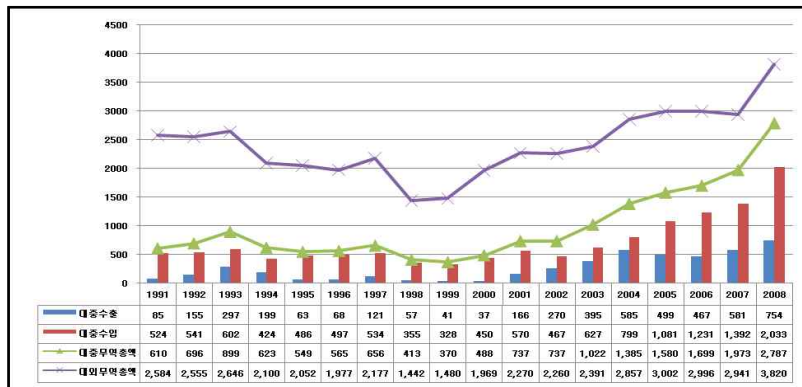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하여 북중 무역관계의 현황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후 남북경협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북중 무역확대를 통하여 남북경협 및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남북경협의 현실은 어떠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지 등을 분석해 본 후 동북아지역의 상생과 공동번영의 차원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과제들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II. 북중 무역구조의 변화와 특징

1. 북중 무역의 변화 추이

중국은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되기 시작한 1990년 초부터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대북 우호가격 폐지 및 경화결제 요구, 북핵 문제로 인한 국제적 여론 악화, 북한 산업의 활동 저하 등으로 1999년에 북중 무역은 최저 수준인 3.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서면서 북한경제 회생과 북한 대외무역 증가로 북중 교역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그림 1. 북한의 대중국 교역 추이



자료: KORTA 통계자료 활용 재구성

2008년 북중 교역액은 27억 8,727만 달러로 북중 무역액 최초로 2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다. 2008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7억 5,404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7% 증가하였고, 대중 수입은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46.0%의 증가율을 보이며 20억 332만 달러를 기록해 북중 무역은 41.2%나 대폭적인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는 수십 년간 지속적인 적자상태이다. 2008년에도 12억 7,918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여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 원인은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저부가가치 상품 중심의 수출, 중국으로부터 원유 및 산업원자재 수입의 절대적 의존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표 1〉 북한의 대중국 교역 추이

	수출		수입		무역총액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0	37,214	-10.8	450,824	37.1	488,038	31.8	-413,610
2001	166,797	348.1	570,660	27.1	737,457	51.1	-403,863
2002	270,685	62.3	467,309	-18.1	737,994	0.1	-196,624
2003	395,344	46.1	627,583	34.3	1,022,927	38.6	-232,239
2004	585,703	48.2	799,503	27.4	1,358,206	35.4	-213,800
2005	499,157	-14.8	1,081,184	35.2	1,580,341	14.1	-582,027
2006	467,718	-6.3	1,231,886	13.9	1,699,604	7.5	-764,168
2007	581,521	24.3	1,392,453	13.0	1,973,974	16.1	-810,932
2008	750,046	29.7	2,033,233	46.0	2,787,279	41.2	-1,279,187

자료: KORTA, 중국해관총서(Customs General Administratim PRC)

다음으로 북한의 전체무역(남북교역 제외)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2000년 24.7%에서 2005년 52.6%로 절반이상을 넘어서면서 계속 상승한데 이어 2008년에는 73.0%로 심화 추세에 있다.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심화의 원인은 ①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대부분의 수입물품을 중국에서 조달, ②중국이 지리적으로 근접, ③중국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향후 중국의 대북경제 영향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남북교역 제외)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비중(%)	24.7	32.5	32.7	42.8	48.5	52.6	56.7	67.1	73.0

자료: KORTA,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각호.

2. 북중 수출입 품목구조의 변화

북한의 대중 주요 수출 품목은 광물자원, 광물성 연료와 철강, 아연, 어패류, 목재 등의 기초 원자재에 집중되어 있다. 2008년 대중 10대 수출품목(HS Code 두자리)은 광슬랙 및 회(HS 26), 광물성연료(27), 철강(72), 의류 및 부속품(62,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어패류(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 암석광물(25), 기타특수품목(98), 알루미늄(76), 의류 및 부속품(61,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전기기기(85) 등 순이다. 목재(44) 및 아연(79)은 수출액이 감소하여 2008년 10대 대중 수출품목에 들지 못하였으며, 암석광물(25,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 석회, 시멘트)과 비편물제의류(61)가 새롭게 10대 수출품목에 진입하였다.

〈표 3〉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목 추이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43.01 6 (52.80)	206.93 1 (52.34)	261.80 6 (44.71)	92,432 (18.52)	43,266 (9.25)	29,936 (5.14)	40,000 (5.30)
어패류	4,047 (10.87)	47,977 (28.76)							
광슬랙	2,607 (7.01)	6,434 (3.86)	8,537 (3.15)	14,963 (3.78)	60,114 (10.27)	95,066 (19.05)	118,425 (25.32)	164,006 (28.20)	212,691 (28.21)
광물연료	3,416 (9.18)	4,318 (2.59)	11,295 (4.17)	17,250 (4.36)	53,100 (9.07)	111,855 (22.41)	102,344 (21.88)	170,028 (29.24)	207,650 (27.52)
목재·나무제품	9,926 (26.67)	4,654 (2.79)	9,425 (3.48)	13,725 (3.47)	15,247 (2.60)	15,050 (3.02)	26,593 (5.69)	20,529 (3.53)	7,754 (1.03)
방직섬유제품	2,584 (6.94)	28,508 (17.09)	43,137 (15.93)	57,637 (14.58)	55,762 (9.51)	67,253 (13.47)	72,247 (15.55)	71,977 (12.38)	91,443 (12.13)
철강	8,662 (23.28)	23,670 (14.20)	27,860 (10.29)	46,794 (11.84)	75,925 (12.97)	72,596 (14.54)	35,249 (7.54)	45,188 (7.77)	78,448 (10.40)

주: 어패류(HS 03), 광슬랙(26), 광물연료(27), 목재·나무제품(44~46), 방직섬유·제품(50~63), 철강(72)
자료: KORTA, 무역협회 KITA.NET

2007년 대중 수출품목 2위였던 광슬랙 및 회(26)는 전년대비 29.7% 증가한 2억 1,269만 달러를 기록하여 1위 수출품목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특히 철광석(HS 2601)의 대중 수출은 2006년 76,594천 달러, 2007년 79,952천 달러, 2008년에는 전년대비 115% 증가한 172,259천 달러를 기록하여 광슬랙 및 회와의 증가세를 주도하였다. 철광석의 수출 확대는 중국기업이 북한 무산광산에 투자하고 대가로 가져오는 물량을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²⁾

광물성연료·광물류(27) 수출액 역시 전년대비 22.1%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 석탄(HS 2701)의 대중 수출은 중량 기준으로는 2,537천 톤으로 전년대비 32.2% 감소한 반면 수출액은 지난해 162,619천 달러에 비해 23.8% 증가한 201,273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석탄의 수출단가가 2007년 0.04달러/KG에서 100% 상승한 0.08달러/KG가 되면서 수출액이 증가된 것으로 풀이된다.³⁾

어패류(03)는 북한의 대표적인 수출품으로 2001년부터 대중 수출 증가를 이끌어 왔으나 2005년부터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대중 수출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있어 2008년 5.3%로 전년보다 소폭의 증가를 보였다.

〈표 4〉 북한의 대중국 수입품목 추이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식용육류	1,474 (0.33)	6,701 (1.17)	10,372 (2.22)	63,623 (10.14)	140,575 (17.58)	104,219 (9.64)	111,868 (9.08)	42,188 (3.03)	7,744 (0.38)
곡물	34,049 (7.55)	62,621 (10.97)	29,910 (6.40)	49,961 (7.96)	15,388 (1.92)	49,811 (4.61)	16,853 (1.37)	36,511 (2.62)	34,875 (1.71)
제분제품	6,886 (1.53)	10,858 (1.90)	10,044 (2.15)	8,092 (1.28)	14,539 (1.82)	24,096 (2.23)	27,465 (2.22)	35,795 (2.57)	2,164 (0.13)
광물연료	117,893 (26.15)	161,800 (28.35)	117,969 (25.24)	180,727 (28.80)	207,657 (25.60)	258,714 (26.43)	347,403 (28.21)	401,961 (28.87)	585,954 (28.82)
방직섬유제품	49,273 (10.93)	49,944 (8.75)	38,572 (8.25)	40,456 (6.45)	48,140 (6.02)	81,684 (7.56)	100,306 (8.14)	152,748 (10.97)	303,622 (14.93)
기계류 전기전자	35,457 (7.86)	46,550 (8.16)	56,921 (12.18)	66,624 (10.62)	85,975 (10.75)	133,306 (12.33)	180,624 (14.66)	173,099 (12.43)	246,132 (12.10)

주: 식용육류(HS 02), 곡물(10), 제분제품(11), 광물연료(27), 방직섬유·제품(50~63), 기계류·전기전자(84, 85)
자료: KORTA, 무역협회 KITA.NET

2) 북한의 무산광산은 10억 톤 이상의 철광석이 매장, 연간 80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북한최대 철광산이다. 중국은 中國中鋼集團公司, 通化鋼鐵集團公司, 延邊天地工業貿易有限公司가 무산광산과 合併會社를 건립,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通化鋼鐵集團公司(길림성 국영기업)는 무산광산에 10억 달러 투자(건설 3억 달러, 광산개발 7억 달러), 50년 개발권 임차, 연간 1,000만 톤 수입 예정이다. 延邊天地工業貿易有限公司(연변 민영기업)는 무산광산에 2007년 300만 달러, 2008년 600만 달러를 투자하여, 2006년에는 105.4만 톤, 2007년 88.8만 톤, 2008년 120만 톤을 수입하고 있다. 특히 연변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는 북한측과 협력하여 무산철광의 철광석 운송을 위한 무산-남평 철광분 수송관 건설, 무산-남평 도로 건설, 무산-청진철도(100km) 보수공사, 청진부두 수송설비개조 등에 5억 달러를 투자, 북중 철광석 무역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보여 향후 연변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의 북한 무산철광석 개발이 북한측과의 장기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자료: 연변일보, 2007.1.30, 7.17, 9.26, 2009.1.18, 2.24 종합정리).

3) KORTA, 『2008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p. 27 참조.

북한의 대중 주요 수입 품목은 산업생산에 필요한 연료와 기계철강, 식용육류와 곡물, 그리고 생활품인 전기기기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이다. 이와 같이 현 단계 중국은 북한의 산업생산에 필요한 주요 원부자재와 소비재의 가장 중요한 제공국으로 북한의 에너지 및 식량난의 극복에 중요한 완역 역할을 하고 있다. 2008년 대중 10대 수입품목(HS Code 두자리)은 광물성연료(HS 27), 기계류(84), 전기기기(85), 의류 및 부속품(61,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플라스틱(39), 자동차(87), 인조필라멘트(54), 철강(72), 의류 및 부속품(62,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외), 동식물성 유지(15) 등 순이다. 새롭게 10위권으로 들어온 품목은 편물제의류(61), 비편물제 의류(62), 동식물성 유지로 각각 265.3%, 1010.2%, 53.9% 증가하였다.

광물성연료, 광물유(27)는 북한의 대중 수입비중이 가장 큰 제품군으로 수입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수입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 5〉 북한의 원유 도입 실적

(단위: 만 톤,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38.9	57.9	59.7	57.4	61.3	52.3	52.4	52.3	52.9
중국	38.9 (100.0)	57.9 (100.0)	47.2 (79.1)	57.4 (100.0)	53.2 (86.8)	52.3 (100.0)	52.4 (100.0)	52.3 (100.0)	52.9 (100.0)

주: ()내는 북한의 전체 도입 실적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임.
자료: KORTA, 『2008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참조.

비산유국인 북한은 원유(HS 2709)를 거의 대부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도입량은 큰 기록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수입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8년 대중 원유도입량은 2005년 이후 큰 변화는 없으나 수입액은 전년대비 46.9% 늘어난 414,310천 달러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표 6〉 북한의 곡물 도입 실적

(단위: 만 톤,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122.5	140.5	100.5	80.9	58.1	86.0	10.0	37.9	28.2
중국	28.3 (23.1)	43.6 (31.1)	21.9 (21.8)	34.9 (43.1)	9.0 (30.0)	33.1 (38.5)	7.9 (79.0)	13.6 (35.9)	11.9 (42.2)

주: ()내는 북한의 전체 도입 실적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임.
자료: KORTA, 『2008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참조.

북한은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식용육류(02), 곡물(10), 제분공업의 생산품(11)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에는 곡물 등 대부분의 식량 도입 품목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곡물 수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쌀(HS 1006) 수입액과 수입물량은 2007년 25,764천 달러, 80,741톤, 2008년 6,721천 달러, 20,079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73.9%, 75.1% 감소하였다. 이는 2008년 초부터 시작된 중국의 식량수출통제정책, 곡물시장의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쌀과 보리는 2008년 4월부터, 옥수수는 8월부터 대중국 수입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된다.⁴⁾ 그렇지만 북한의 전체 곡물 도입실적에 포함된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을 제외할 경우, 개별국가 차원에서 제공되는 곡물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3. 북중 무역구조의 특징

최근까지 북중 무역구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첫째, 북한의 대중 교역의존도 심화이다. 특히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일본과 중국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 비중은 2005년 52.6%에서 2008년 기준으로 73.0%로 급상승 하고 있으며, 일본의 금수조치(2006년 10월), 한국과의 경색국면 등으로 2008년에 중국 의존도는 훨씬 높아졌다. 이런 북중 무역의 증가는 북한 교역규모의 증대를 견인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의 증가는 북중 무역의 증가와 정(+)의 관계를 보여 왔다.

또한 북한경제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출과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북한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2006년 49.4%, 2007년 63.3%, 2008년 66.7%를 보이고 있지만, 특히 대중 수입의존도는 2006년 60.1%, 2007년 68.8%, 2008년 75.7%를 기록하고 있어 대중 교역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둘째, 북중 수출입 품목구조의 변화에 있어서 북한의 대중 수출은 주로 광물자원, 무연탄, 철강, 수산물 등의 1차산품 중심의 수출구조이다. 반면, 중국으로부터는 산업생산에 필요한 연료, 기계철강을 비롯해 식용육류와 곡물 및 각종 생활용품을 수입하고 있다. 즉, 북한은 수출품목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경제에 필요한 모든 제품들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런 구조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한층 강화된

4) KORTA, 『2008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p. 29 참조.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은 만성적인 대중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해마다 2~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다가 2005년부터 적자규모가 더욱 확대되었다. 따라서 수출품목이 제한된 북한으로서는 북중 무역이 확대될수록 대중 적자규모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넷째,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의 경우 도입량에 큰 변화가 없지만 수입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따라서 과거 전통적 우호관계와 밀착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에 적용하던 우호가격과 같은 특혜가 배제되어 있다. 이는 중국이 국내외의 경제적 요인들을 감안한 상업적 기준으로 북한에 원유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III. 북동북3성 무역구조의 현황과 특징

1. 북동북3성 무역의 변화 추이

북한의 대중 무역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접하고 있는 동북3성에 집중되어 있다. 동북3성이 북중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부터 그 비중이 다소 낮아졌지만 2008년에는 다시 70%를 상회하고 있다. 2008년 북한은 요녕성, 길림성(吉林省), 흑룡강성(黑龍江省)에서 15억 6,778만 달러를 수입하여 북한의 대중 수입총액의 77.1%를 차지하였으며, 요녕성과 길림성에 수출은 5억 3,742만 달러로 수출 총액의 71.3%를 차지하였다.

〈표 7〉 북한의 대동북3성 수출입 추이

연도	(단위: 천 달러,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347,327 (70.55)	541,428 (73.42)	580,691 (78.67)	785,512 (76.79)	1,004,202 (72.49)	1,061,227 (67.16)	1,104,606 (65.34)	1,359,848 (68.89)	2,105,200 (75.53)
수출	33,444 (89.87)	138,745 (83.18)	253,318 (93.52)	372,783 (94.29)	497,136 (84.88)	354,038 (70.93)	332,814 (71.16)	377,013 (64.83)	537,422 (71.27)
수입	310,883 (68.96)	402,683 (70.56)	327,373 (70.05)	412,729 (65.76)	507,066 (63.42)	707,189 (64.41)	777,646 (63.13)	982,835 (70.58)	1,567,778 (77.11)

자료: KORTA, 무역협회 KITA.NET, 중국해관무역통계.

동북3성에서는 요녕성의 무역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녕성의 비중은 수출 면에서는 다른 2성보다 절대적이지만 수입 면에서는 그 비중이 다소 낮은 편이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흑룡강성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수입에서는 요녕성 다음을 차지한다. 이는 중국 최대 유전인 대경(大慶)유전으로부터 송유관을 통해 원유(HS 2709)를 수입하기 때문이다.⁵⁾ 북한의 동북3성에 대한 무역 품목은 대부분 대중국 수출입품목과 일치하지만 동북3성의 각 성별 수출입 품목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⁶⁾

〈표 8〉 북한의 대중국 성별 수출입

(단위: 천 달러, %)

대중국 성별 수출									
순위	2006			2007			2008		
	성	금액	비중	성	금액	비중	성	금액	비중
1	요녕성	206,453	44.1	요녕성	260,338	44.8	요녕성	343,215	45.5
2	길림성	126,361	27.0	길림성	116,675	20.0	길림성	194,207	25.8
3	산둥성	62,989	13.5	산둥성	97,759	16.8	산둥성	105,455	14.0
4	강소성	36,814	7.9	강소성	41,123	7.1	강소성	60,261	8.0
5	사천성	11,349	2.4	하북성	32,510	5.6	하북성	19,078	2.5
계		443,966	94.9		548,405	94.3		722,216	95.8
대중국 성별 수입									
1	요녕성	369,153	30.0	요녕성	499,461	35.9	요녕성	639,061	31.4
2	흑룡강성	298,560	24.2	흑룡강성	329,402	23.6	흑룡강성	503,563	24.8
3	길림성	109,933	8.9	길림성	153,972	11.0	길림성	425,154	20.9
4	산둥성	81,826	6.6	산둥성	77,356	5.5	산둥성	89,168	4.4
5	사천성	63,622	5.2	강소성	60,197	4.3	강소성	83,979	4.1
계		923,094	74.9		1,120,388	80.4		1,740,925	85.6

자료: 중국해관무역통계.

2. 북길림성 무역구조의 변화

중국 길림성은 북한과 약 1,206km에 걸쳐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2002년부터 추진된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동북진흥계획’과 더불어 북한과의

5) 북한은 대경유전으로부터 약 400km에 걸쳐 송유관(단동 북부-압록강-신의주-안주 부근)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고 있다. 1976년 개통된 이 송유관은 보안 및 도난 방지를 위해 땅 속 및 압록강 바닥에 매설되어 있으며, 직경 40cm 정도로 연간 최대 400만톤의 원유 수송이 가능하다. 『요미우리신문』, 2004. 12. 14.

6) 최수영(20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통일연구원, p. 40.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이 지역의 국경 통관 인프라 시설을 강화하고 있다.⁷⁾ 따라서 이러한 지리적 인접성과 동북진흥정책으로 길림성은 북한과의 경제무역 거점지역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

길림성의 대북 무역은 2007년 3억 4,259만 달러로 2000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성장하였다. 중국의 대북 수출에서 길림성은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만 길림성의 대북 수입은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2007년의 경우 대북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북한의 전력부족으로 인한 광물 생산 감소와 함께 북한의 광물수출 규제 강화로 길림성에 대한 철광석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길림성의 대북 무역수지는 2004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의 흑자 규모는 한층 확대되고 있다.

〈표 9〉 길림성의 대북한 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대북 수출		대북 수입		대북 수출입 총액	
	길림성	비중	길림성	비중	길림성	비중
2000	98.19	21.78	19.85	53.35	118.04	24.19
2001	139.15	24.38	30.18	18.10	169.33	22.96
2002	108.09	23.13	43.99	16.25	152.08	20.61
2003	114.64	18.27	65.35	16.53	179.99	17.60
2004	131.12	16.40	152.07	25.96	283.19	20.44
2005	189.77	17.55	164.39	32.93	354.16	22.41
2006	174.19	14.14	167.69	35.85	341.88	20.12
2007	198.27	14.02	147.32	25.33	342.59	17.36

자료: 中國商務年鑑, 吉林省統計年鑑.

다음으로 길림성의 대북 수출입 품목을 보면 우선 품목수가 적으며, 상위 주요 품목의 비중이 수출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순 구조이다. 2007년 길림성의 대북 수출은 식료품, 방직제품, 자동차 및 관련 부품 등이 주요 품목으로 전체 수출의 47%를 기록한다. 대북 수입은 광물, 금속, 목재 등의 기초 원자재로 전체 수입의 57%에 달하고 있다. 특징적으로는 길림성의 대북 수출에서 식료품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방직제품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수입에서는 광물의 수입이 2000년에는 2.35%에서 2007년에는 42%로 대폭 증가하고 있고, 목재는 2000년에 28.6%에서 2007년에는 11%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준다.

7) 2009년 현재 길림성에는 10개의 세관인 통상구(通商口, 口岸이라고 함)가 설치되어 있으며, 1개의 공무(公務)전용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

〈표 10〉 길림성의 대북한 주요 수출입 품목 비중

(단위: %)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출								
식료품	37.30	41.88	38.57	40.44	19.21	26.98	18.05	26.49
방직품	9.82	11.40	11.74	13.49	15.30	10.73	13.31	13.44
정제유	3.70	1.59	1.29	1.09	1.16	0.64	1.08	0.72
금속	6.96	3.83	3.70	1.79	10.51	3.21	4.97	4.98
자동차	5.11	2.60	2.58	2.75	4.79	4.56	3.30	7.13
전기제품	0.37	0.54	1.82	1.51	1.46	4.29	2.93	2.15
합계	63.26	61.84	59.69	61.07	52.43	50.41	43.64	54.91
수입								
광물	2.35	1.94	2.48	4.27	32.68	42.44	37.86	42.00
금속	24.77	18.93	12.03	18.03	7.14	17.51	6.77	4.77
목재제품	28.57	10.68	12.67	12.94	8.52	7.09	12.18	11.05
합계	55.69	31.55	27.18	35.23	48.34	67.04	56.81	57.82

자료: 吳昊(2009), “中国吉林省と北朝鮮の経済貿易関係の現状と展望,” 環日本海經濟研究所, 『Erina Report』(88), July. P. 6 참조 재정리함.

길림성의 무역 형태 및 유형별 비중과 관련해서는 통상구를 통한 일반무역, 접경지역 무역의 편의를 위해 양국 합의하에 개방된 특정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변경소액무역, 그리고 가공무역, 바터무역(barter trade)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길림성과 북한 간의 무역에서는 관세 우대정책이 적용되는 변경소액무역이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변경소액무역이 무역형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입 모두 60% 이상이다. 가공무역의 경우 전체 무역에서 아직은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준다. 특징적으로는 길림성의 대북 수입에서 있어서는 변경소액무역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일반무역의 비중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가공무역에 의한 수입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표 11〉 길림성의 대북한 무역 유형별 비중

(단위: %)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출								
일반무역	30.44	25.16	32.22	25.82	19.84	28.22	16.73	21.45
가공무역	2.50	1.63	3.05	6.44	4.05	3.87	6.59	5.62
변경소액무역	64.12	50.74	61.54	61.92	61.07	55.05	66.08	66.20
바터무역	0.69	0.04	0.01	0.001	9.94	5.16	7.64	0.28
기타	2.25	22.43	3.17	5.82	5.10	7.69	2.96	6.45
수입								
일반무역	0.10	0.33	3.09	3.37	15.28	21.58	15.19	15.16
가공무역	1.81	3.64	3.64	9.06	3.88	4.63	6.85	3.54
변경소액무역	94.01	90.23	86.52	83.23	75.32	69.80	63.80	62.33
바터무역	0.00	0.13	0.00	1.85	3.76	0.16	1.14	0.57
기타	4.08	5.67	6.75	2.49	1.76	3.83	13.02	18.40

자료: 吳昊(2009), p.7 참조 재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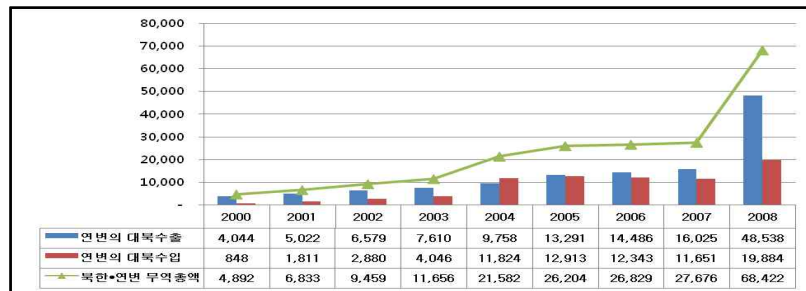
3. 북동북3성 변경무역의 현황

북중 교역은 주로 북한과 중국 동북3성의 접경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길림성 연변(延邊)지역과 요녕성 단둥(丹東)을 중심으로 변경무역의 형태로 활성화되고 있다. 변경무역은 중국 중앙정부가 지정한 특정 국경지역에서 '변경소액무역권'을 허가 받은 기업이나 변경지역에 개설된 시장(변민호시)에서 거래되는 무역을 의미한다.⁸⁾ 따라서 접경지역 중국 업체들은 북한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제도적 특혜를 활용하여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다.

변경무역을 통해 북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공업 제품과 식량의 대부분이 유입될 뿐만 아니라 산업생산을 위한 각종 기계류, 전기설비, 화학제품도 수입되고 있다. 따라서 연변 및 단둥지역에 소재한 무역회사와 기업들이 북한과 거래한 공식적인 교역규모가 2008년 연변지역은 6억 8,422만 달러, 단둥지역은 7억 5천달러 등 7억 달러를 상회함으로써 접경지역 지방정부와 지역기업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주요한 협력 파트너가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북한연변 간 무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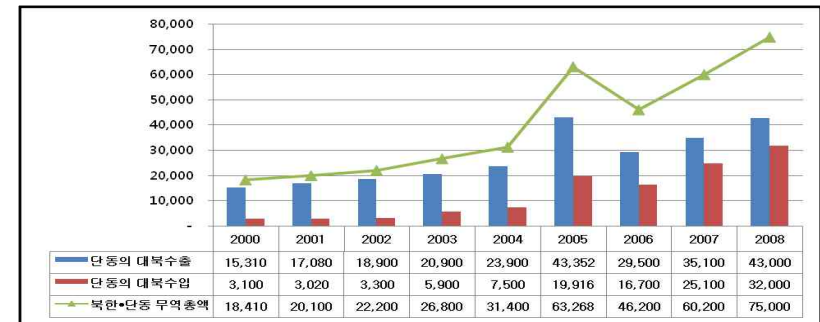
자료: 延邊州商務局



8) 중국 법률규정에 의한 변경무역은 국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변경소액무역', '변경호시무역' 및 '변경지역 대외경제기술협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중앙정부는 낙후된 변방지역의 경제발전 및 인접국가와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변경무역에 관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변경무역에 대한 우대조치는 '대외무역법'과 국무원이 제정한 '변경소액무역 잠정관리방법' 등의 법률규정에 기초하고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① '변경소액무역권'을 승인받은 업체에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수입관세의 50%를 감면, ②수출입 쿼터 및 허가증에 의해 관리되는 식량 및 국가관리 대상 상품을 거래할 경우, 변경지역 무역회사와 기업들에게 취급 허가 및 쿼터 배정에서 우대함, ③개인이나 기업 관계자가 변경지역에서 소규모로 구입한 1인당 3,000위안 상당의 물품에 대해서는 국경 통과 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그림 3 북한단둥 간 무역 현황

자료: 丹東市商務局



동북3성의 접경지역 중국업체들이 북한과 거래하는 방식은 ①변경무역제도 혜택을 활용한 수출입거래, ②북한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반입하는 임가공 제조, ③북한과 외국기업들 사이에서 중간거래자 역할, ④밀무역 등의 불법적인 거래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2> 중국 업체 거래 방식의 주요 특징

변경무역권	- 변경무역권을 승인받은 업체에 증치세와 수입관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정부의 우대조치 - 단둥지역의 경우, 130개의 업체가 변경무역권을 가짐. - 변경지역과 이외 지역에 위치한 무역회사와 기업들의 수출입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많은 중국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변경무역의 세제혜택을 받고 있음. - 삼천리 총회사를 비롯한 단둥에 상주하는 무역회사와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 기업관계자 및 화교들과 거래선을 형성하고 있음. - 무기류와 화학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북 수출과 관련하여 거래물품의 종류와 거래액수의 제한은 없음.
임가공제조업	- 북한의 생산공정에 원부자재와 설비를 제공하고 노임에 해당하는 임가공비를 해당 기관에 지급함. - 최근 빠른 성장을 보이는 의류봉제 부문의 대중 수출은 중국업체의 대북 임가공 확대에 기인함. - 기계설비와 장비를 북한에 무상제공하고 추후 지원한 설비 가격을 임가공비에 차감함. - 외화 현금으로 임가공비를 북한에 지급하고 있음.
제3국교역	- 남한기업이 단둥 등의 접경도시에서 현지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거나 중국인 대리인이 남한이나 유럽 등에서 주문을 받아 북한과 거래함. - 의류봉제 임가공 사업과 광산물과 농수산물 교역을 위주로 하고 있음. - 변경무역권을 가진 중국업체에 수출입 대행을 의뢰하거나 북한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위에서 살펴본 중국업체들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밀 무역	- 1990년대에 만연하였던 대규모 밀수는 줄어들었음. - 북한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검역 절차가 체계적이지 못해 이중용도 물품이나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물품들이 차량에 섞여서 반입되고 있음. - 북집무역의 형태로 종합시장과 수매상점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물품의 상당량이 반입되고 있으며,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사치품과 기계·전자기기 부품이 반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

자료: 이준운(2009), “북중 접경지역 중국업체의 대북 거래관행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5 재인용.

4. 북동북3성 무역구조의 특징

북동북3성 무역구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첫째, 북한의 대중 및 동북3성의 교역에서도 요녕성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구조의 지속성이다. 그렇지만 2002년 ‘7·1조치’이후 중국 연해지역 성들이 북한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있고, 특히 일본의 대북경제 여과 등으로 어패류의 대중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동북3성의 위상도 추락하고 있다.⁹⁾

둘째, 북한의 대중 무역이 동북3성 편중에서 중국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중 무역이 주로 동북3성에 집중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산둥성(山東省), 강소성(江蘇省), 사천성(四川省), 허북성(河北省), 절강성(浙江省), 광둥성(廣東省) 등 내륙지역과 남방 연해지역까지 대북한 무역에 참여하고 있다.¹⁰⁾

셋째, 북한의 대동북3성 통상구를 중심으로 하는 변경무역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접경지역의 북중간 교역에는 국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신용장거래와 은행을 통한 외환결제보다는 거래당사자간의 현금거래와 물물교환(구상무역) 같은 대금결제 방식이 관행화되어 있다. 이러한 현금결제와 현물거래의 관행화는 북한 측의 요구가 주된 이유이지만 일부 중국 업체 또한 비공식적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넷째, 변경무역을 통한 물자교류, 현금구매, 현물거래, 북집무역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대동북3성 교역규모는 중국세관 자료를 활용한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 접경지역에 관행화되어 있는 거래방식은 최근까지 북중 경제교류를 확대하는데 기여하였지만, 거래 규모와 거래 당사자가 제한되고 불법적인 요소들이 병존하고 있

9) 배종렬(2006), “북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변화 전망”, 『수은북한경제』, 겨울호, p. 55.

10)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진 중국의 최남단에 위치한 광둥성도 대북 교역에 참여하고 있다. 북한-광둥성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교역액은 2,193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해관무역통계에서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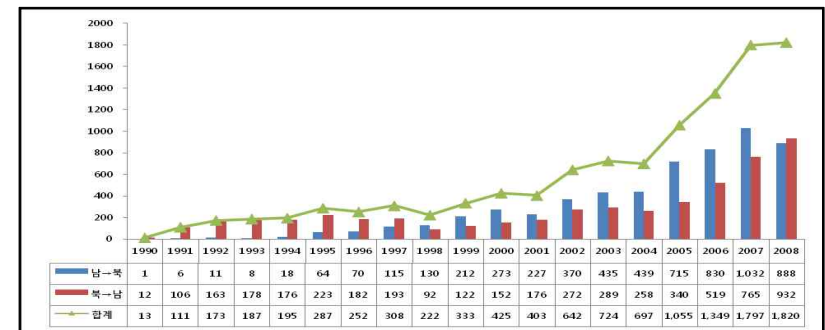
어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정부가 향후 금융제도와 교역관행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현재 접경지역에서 만연하고 있는 비공식적·불법적 대금결제 관행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경우 접경지역에서의 중국과 북한 업체들의 거리는 크게 위축될 수 있다.

IV. 북중 무역관계 확대의 영향과 남북경협

1. 북중 무역관계와 비교된 남북경협의 현황

남북경협은 1988년 한국 정부에서 북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시작되어, 남북관계에 긴장이 조성된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남북교역은 2005년 10억 달러를 돌파한 후 2007년에는 전년대비 33% 증가하면서 17억 9,789만 달러 수준까지 증가했으나 2008년에는 18억 2,037만 달러로 전년대비 1.2% 증가에 그치고 있다.

그림 4 남북교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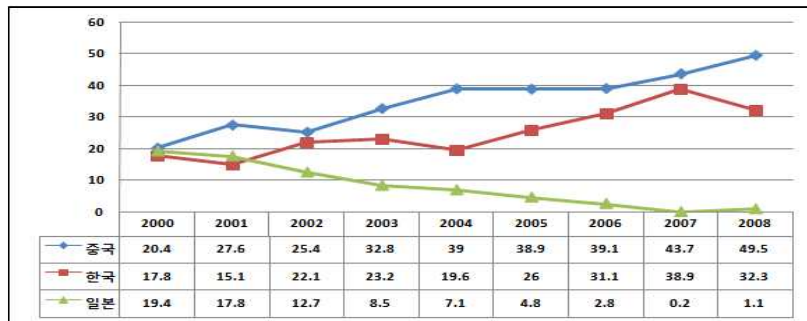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매월호.

남북경협의 특징으로는 우선 북한의 대외경제에서 남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점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북한의 주요 무역상대국은 중국과 일본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일본의 대북 무역이 크게 감소하면서 중국과 한국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한국이 중국처럼 북한에 있어서 새로운 대체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008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은 49.5%, 한국은 32.3%, 일본은 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북한 무역중 한중일 비중



자료: KORTA, 무역협회 KITA.NET

다음으로 남북교역 통계로 본 남북경협 부문별 추이를 보면 무역은 완만하게 증가해온 반면 투자 및 지원은 1995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무역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투자와 지원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은 전체 거래액(무역과 투자, 지원을 모두 합한 개념)에서 지원성 거래, 즉 비상업적 거래(투자과 지원)가 30~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3>에서 보면 대북지원은 2000년도 이후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북지원내역은 금강산관광사업, KEDO 경수로 사업,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사업 등 사실상 투자적 성격의 정부간 협력사업 내용은 제외한 수치로서, 순수하게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 수치이다. 한편 북중 무역은 일반무역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으나 남북교역은 아직도 지원성 교역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볼 수 있다.¹¹⁾

<표 13> 남북경협의 부문별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1990	1996	1998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무역	14 (100.0)	238 (94.4)	144 (64.6)	240 (56.2)	343 (53.4)	348 (49.9)	420 (39.8)	557 (41.3)	791 (44.0)	808 (44.4)
일반교역	13 (68.9)	163 (68.9)	73 (49.7)	110 (46.3)	172 (49.2)	172 (49.4)	210 (50.0)	304 (44.6)	461 (48.3)	399 (49.5)
위탁가공	- (-)	74 (31.1)	71 (49.3)	129 (53.7)	171 (49.8)	176 (50.6)	210 (50.0)	253 (45.4)	330 (41.7)	408 (50.5)
투자	0.0 (-)	13 (5.2)	63 (28.3)	82 (19.2)	86 (13.4)	91 (13.1)	270 (25.6)	371 (27.5)	640 (35.6)	904 (49.7)
지원	0.0 (-)	1 (0.4)	16 (7.2)	105 (24.6)	213 (33.2)	258 (37.0)	365 (34.6)	421 (31.2)	366 (20.4)	108 (5.9)
합계	14	252	223	427	642	697	1,055	6,349	1,797	1,820

주: ()내는 비중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매월호.

일반교역의 경우 1999년부터 50% 이상 위탁가공교역 중심(2006, 2007년 제외)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북중간 무역에서는 비교우위원리에 따라 정상적인 일반교역이 진행되고 있다면, 남북교역에 있어서는 이러한 형태의 일반교역이 50%도 안되고 북한에 원부자재를 제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해서 남한에 반입하는 위탁가공교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경협의 경우 2000~2005년간 일반교역(위탁가공포함)의 연평균 적자규모가 1억 5천만 달러 규모이지만, 동기간의 중국의 대북 무역의 흑자규모는 연평균 3억 3천만 달러이다. 이는 북한이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이 우위에 있는 농수산물, 금속제품 등을 수출하고 또한 위탁가공비로 벌어들인 외화를 가지고 북중 무역에 필요한 물자들을 수입하는데 결제하는 메커니즘이 북한의 대외무역에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를 짐작하게 한다.¹²⁾ <그림 5>를 보면 남북경협의 확대와 더불어 북중 무

11) 북중교역에서 있어서 거래형태는 주로 일반무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출은 변경무역 의존도가 높으며, 수입은 일반무역 형태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대중 무역방식별 무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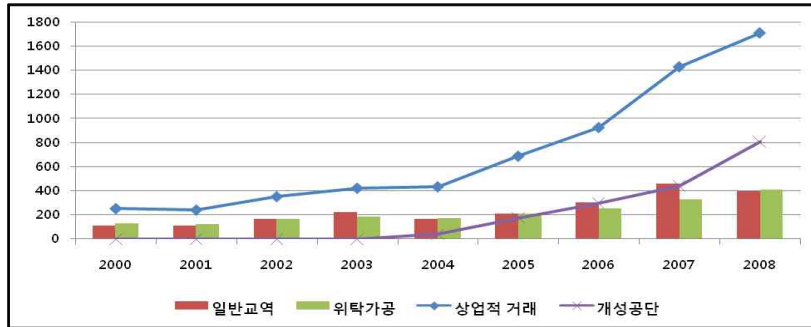
	2007				2008. 1~10월			
	수출	수입	무역액	비중	수출	수입	무역액	비중
일반무역	221	835	1,056	53.5	211	627	1,138	53.6
가공무역	30	98	128	6.5	34	97	131	6.2
변경무역	175	385	560	28.4	212	326	538	25.3
기타	156	74	230	11.6	213	104	317	14.9
전체실적	582	1,392	1,974	100.0	670	1,454	2,124	100.0

자료: 중국해관무역통계

12) 이영훈(2006)의 연구에서는 북한이 남북경협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는 연평균 2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북중 교역의 무역수지적자는 연평균 3~4억 달러이며, 부족한 1~2억 달러는 북한이 해외로 송출한 노동력의 임금수입, 식당 등 해외투자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 외 밀무역을 통한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역도 비슷하게 증가세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6 상업적 거래와 개성공단사업의 증가 추이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매월호.

남북경협은 2001년 이후, 특히 개성공단사업이 진행되면서 전체 교역에서 투자비중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반출입 총액은 17억 6,634만 달러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¹³⁾ 그러나 개성공단 사업이 현재 대규모로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는 의미는 있지만, 북한 국내산업 및 국내시장과 연관된 진출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국과 같은 대북투자의 의미성을 발견할 수 없다. 중국은 현재 제조업, 유통업, SOC 분야, 자원개발 등으로 대북투자가 다변화되어 있어 한국의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중국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2. 북중 무역관계 확대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2000년 이후 북중 무역관계의 확대 속에서도 남북경협은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13) 북한의 통행 제한, 차단조치가 해제된 2009년 8월 개성공단의 수출액은 6개월 만에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316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9%, 전월 대비 36% 증가했다. 특히 2008년 12월 북측의 출입제한 조치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등 2007년 상황에 비해 크게 나빠졌으나, 2009년 8월 수출이 증가하면서 2007년 8월 수출액(326만 달러)에 근접했다. 이러한 수출액 증가는 주요업체들의 대 중국 및 호주 수출물량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반면 개성공단 기업들의 2009년 8월 총 생산액은 2천96만 달러로 전가전자업종 실적 증가로 인한 상승이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 2천318만 달러에 비해 9.6% 감소했다. 2009년 8월 기준 북한근로자는 총 3만 9,933명으로 전월대비 429명이 증가했고, 2009년 10월 7일 1개사가 신규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총 115개로 증가했다. 『통일부 보도』, 2009. 10. 9 참조.

발전해 왔다. 그러나 2008년부터 시작된 남북경협의 위축 속에서 북중 무역확대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남북관계와 남북경협에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영향을 미치고 있다.¹⁴⁾ 최근에는 북한이 대화 재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남북경협의 정상화가 모색되고 있다.¹⁵⁾ 어쩌면 북한은 심화된 북중 무역관계 확대의 부담을 덜고자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도 모른다. 이는 현재까지 남북경협의 절대적인 규모가 북중 무역관계 확대와 함께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중 무역관계 확대로 북한은 산업가동률과 성장 잠재력이 제고되고, 산업설비의 현대화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경제난 해소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다면 북중 무역관계 확대는 이런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남북경협 역시 북한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화를 유도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국제경제질서에 조속히 편입되길 기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 경제가 중심을 가지고 성장한다면 북한의 국민소득과 구매력이 증대되어 남북한간 경제력 격차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경제성장은 남북경협의 확대를 수반하는 선순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중 무역관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북한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경쟁에서 남북경협의 주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북한의 대중 대외무역 의존도 심화는 대북협상에서 남북경협의 레버리지(leverage)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즉 남북경협의 구조적인 제약 및 북중 무역관계 진전의 속도가 남북경협의 진전 속도보다 빠른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대외무역관계에서 남북경협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2008년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14) 2008년의 경우 남북관계 경색의 여파로 2008년 비상업적거래는 전년 대비 -70.4%의 기록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9년 들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남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선언이후 남북교역은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남북교역액은 2008년 18억 2,036만 달러(6월말 기준 8억 8,079만 달러)에서 2009년엔 6월말까지 6억 5,276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6% 급감하였다. 대북 인도적 지원액도 2007년 3억 4,611만 달러에서 2008년 1억 456만 달러로 3분의 1로 줄어든 데 이어 2009년 들어 8월말까지 2,604만 달러로 급감했다. 그러나 2009년 북중 교역액은 6월말 기준으로 11억 194만 달러로, 남북교역액이 북중 교역액의 59%에 불과하다. 여기에 최근 방북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북한에 신암록강대교 건설 등 2억 위안(약 343억 원) 규모의 경제지원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핵을 계기로 북한 경제의 ‘근중원남(近中遠南)’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협력력을 통한 남한의 대북 지렛대 상실이 우려된다. 결과적으로 북중 경협과 남북경협은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제인 만큼, 북중 경협이 커질수록 남북경협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헤럴드경제』, 2009. 10. 8 참조.

15) 북한은 최근 한국과 미국에 대한 대화 재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성사 및 여가자 석방,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의 방북과 억류된 유씨의 석방 및 남한당국과의 대화 재개와 현대가 추진하고 있는 경협사업의 정상화 의지를 시사하는 5개항에 대한 합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고위급 조문단 파견 및 대통령의 면담 성사에 이어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핵심자 회담과 연안호의 송환 등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의지 표명은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①북중 무역 증가율이 남북교역 증가율을 상회함으로써 북한의 대남 무역의존도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한 점, ②북중 교역의 대부분은 상업적 거래인 반면, 남북교역의 50%까지 비상업적 거래인 데서 드러나듯이 남북교역의 상업적 거래의 증가율이 북중교역의 증가율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 ③북한의 대중 수요 수입 품목은 중국제품의 낮은 가격, 저렴한 물류비 등의 이점을 감안하면 한국 또는 제3국으로의 수입선 전환이 매우 어려운 실정, ④투자 면에서도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대북 투자를 실행, 한국의 대북 투자는 3대 경제사업 중심의 제한된 지역에서 추진 등을 거론할 수 있다.

한편으로 중국의 국무원에서 통과된 동북진흥 개발계획의 가속화가 중국의 대북 투자진출로 확대될 경우 길림성의 북한 나진-선봉 일대의 도로, 철도 및 항만(나진, 청진항), 광산개발 그리고 요녕성의 단둥-신의주 주변의 도로, 철도 및 항만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 가운데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 따라 이어지는 동변도 철도는 북중 대외 무역 및 교통물류 확대가 예상된다.¹⁶⁾ 따라서 동북3성 개발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기지 및 소비시장으로 전락하여 중국경제에 예측될 수도 있다. 더구나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위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전략에서 이제는 SOC 분야, 제조업, 유통업, 제약, 식료·일용잡화 등까지 광범위하게 직접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중국 중심의 산업경제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¹⁷⁾ 따라서 남북 경제협약의 확대발전을 통한 한반도 종합개발계획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북중 무역의 확대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북한경제의 성장과정에서 남북경협이 동반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2008년부터 형성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남북경협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남북경협의 확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통일한국의 실현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중 무역의 확대와 남북경협의 추진은 상호보완적인 형태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가야 한다. 따라서 북중 무역 확대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맞설 수 있는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한다.

3. 북중 무역관계 확대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16) 동변도 철도는 동북3성 사회간접자본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을 따라 요녕성 대련과 흑룡강 수분하를 연결하는 전장 1,380km에 이르는 건설을 말한다. 따라서 북중, 북러 간 변경지역을 따라 남북으로 연결되는 동변도 철도가 확충된다면 동북3성과 북한 및 러시아 국경 지대와 연결되어 동북지역 개발은 물론 이 지역을 관통하는 물류체계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의 국경을 나란히 하면서 건설되기 때문에 북한경제 개발 및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7) 중국의 대북 투자는 다음을 참조, 김영근(2008), “중국의 대북투자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배종렬(2008),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 『수은북한경제』, 가을호.

북중 무역의 확대는 북한경제에 긍정적·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우선 긍정적 인 관점에서 보면 북중 무역 확대는 남북교역의 감소 및 북핵 문제 등으로 국제적 고립에 처해있는 북한의 경제난 해소와 경제성장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기계, 설비, 원자재, 연료 등을 다량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물자 수입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당장 산업가동률 저하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북중 무역이 확대될수록 북한의 산업생산 및 고용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¹⁸⁾

그러나 북중 무역액의 증가가 북한경제의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 이는 북한의 대중 수입품목 중에서 기계, 설비, 원자재의 수입증가는 그렇게 크지 않는 반면에 원유를 포함한 연료의 경우 수입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즉 수입액의 증가와는 달리 산업생산에 직결되어 있는 생산요소의 수입량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동북진흥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3성 발전의 가속화는 북한에게 지역경제협력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과 동북3성간 교통물류 인프라 연계 및 자원의 공동개발·활용과 같은 각종 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면 중국 접경 북한지역의 경제활동 및 산업생산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최근 들어 중국의 대북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동북3성 발전과 맞물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중 무역의 특징 중 하나인 변경무역의 발전은 직간접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연계되어 있어 물자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북중 무역 확대는 장기적으로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우리의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이 북한을 자국의 영향권에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면 북중 무역 확대를 비롯한 중국의 대북투자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북중 무역의 확대의 부정적인 영향은 북한 대외무역의 지나친 대중 의존도 때문에 발생한다. 남북교역을 포함할 경우 북한의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2000년 20.4%에서 2004년 39.0%로 높아졌고, 2008년에는 49.5%로 지속적인 상

18) 무역을 통해 비효율적 산업에 투입되었던 생산요소가 보다 효율적인 산업으로 재배치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조명철 외(2006),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190, 193.

승을 기록하고 있다.¹⁹⁾ 같은 기간 한국은 북한의 대외교역(남북교역 포함)에서 2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개성공단사업이 본격화되면서 2007년 38.9%로 높아졌다. 그러나 2008년의 경우 32.3%를 기록하면서 개성공단사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경협은 순수한 상업적 거래만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은 낮아지고 중국의 비중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북한의 대중 주요 수입 품목은 북한 산업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북중간의 유리한 관세, 저렴한 물류비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로 옮겨갈 가능성이 낮다. 특히 에너지, 화학제품, 기계류 등 일부 품목을 러시아나 기타 국가로 수입선을 다변화하여 수입 대체를 고려할 수 있으나, 수입단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의 수입국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북한의 대중 수입품목 중 상당수는 다른 시장으로의 대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북한이 일본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품목이 한국 등 다른 나라 시장으로 대체가 용이한 것과 대비된다.

따라서 내수 위주의 산업구조인 북한경제는 대중 무역(수입)의존도의 완화는 당분간 기대할 수 없다. 결국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지나칠 경우 중국으로부터 산업생산에 필요한 원유 등 연료와 원자재의 공급이 제한될 때 북한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결국 지나친 대중 경제 의존으로 중국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북한이 정책을 결정할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다.

한편 중국의 대북 투자에 따르는 북한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선점 및 대북 영향력 증대, 특히 동북3성 개발과 맞물린 대북 인프라 구축형 투자의 확산에 따라 중국은 북한과의 육로 수송망 연결을 통해 북한 시장 선점 및 경제적 영향력 증대를 예상할 수 있다.²⁰⁾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이 커질수록 북한경제는 중국경제와 긴밀히 연계된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될 수 있으며, 중국경제의 하부구조 형태로 낮은 수준의 경제 및 산업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낮춰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19) 향후 중국의 동북3성 개발에 따른 원자재 수요 증가 및 대북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북중 교역 증가로 인해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 중국의 대북 투자 증대는 '경제난에 따르는 북한 붕괴'라는 시나리오를 미연에 방지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안유리공장 건설 무상지원은 우방권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방북 이후 북한의 6자회담 참여 유도과 관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합뉴스』, 2004. 3. 2.

북한의 내수시장은 이미 중국제품의 소비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의 자체적인 자본축적을 통한 소비재 생산증가 → 소비증가 → 투자증가 → 자본축적의 선순환 발전구조 형성을 저해하고, 대신 소비재의 수입대체 → 생산중단 → 자본축적 실패 → 재투자 중단이라는 악순환 구조의 심화를 초래할 것이다.²¹⁾

V. 결 론

중국의 동북진흥계획은 동북3성을 개발하고 동 지역을 동북아의 중심 경제지역으로 발전시키려는 정책으로서 최근 '요녕성(遼寧省) 연해경제벨트 계획' 및 '길림성(吉林省) 장길도 개발 개방 선도구 계획 개요' 등의 지역개발 정책 실시로 북중 무역은 더욱 크게 증가되고 있다. 한편 남북경협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더불어 한반도경제공동체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를 동북아 허브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중 무역 확대와 남북경협의 추진은 서로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측면이 있다.

북중 무역의 확대는 북한경제의 개방도를 높이고 시장화를 촉진해 나가는 환경을 조성한다. 우선 체제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하면서 조심스럽게 북한식 개혁개방을 시도하고자 하는 북한으로서 대중 무역 확대는 기존 경제시스템을 수정하고 개방도를 높여가는데 북한 주민들의 거부감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북중 무역의 확대는 시장경제 요소를 받아들이며, 대외경제의존도를 높여가는데 있어 안전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이 계획경제시스템을 점진적으로 시장화의 방향으로 개혁해 나가고자 할 때 중국의 경험은 북한에 있어서 좋은 벤치마킹의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처럼 북중 무역의 확대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한반도경제공동체 구축의 여건을 조성해준다는 면에서 의의는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의 대중 의존도 증가는 북한시장의 중국 선점으로 인해 남북한 경제의 통합과정에서 애로를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국내 산업이 중국의 산업구조에 종속화(從屬化)될 가능성이 높아져 남북 산업간 연관관계 구축에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21) 우상민(20050, "북중 경제 관계 현황과 전망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중심으로-", KORTA, p. 42.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염원인 동북아경제협력체 구축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북·중 무역관계와 남북경협은 대체적(代替的) 관계에 있기 보다는 상보성(相補性)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경협은 동북아 역내 협력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북·중 무역관계의 확대를 경계하고 이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북·중 무역관계와 남북경협을 상호 보완성을 추구하여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동북아경제공동체가 구축되어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남북중국 3자간 경제협력 시스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경제공동체 및 통일한반도의 실현은 북·중 경제협력을 배제하고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열린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구상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과 다양한 양자간 협력, 다자간 협력, 국제협력 사업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중 경제협력 핵심지역인 요녕성 및 길림성의 발전계획 모두 한국과 일본 등의 협력 및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발전정책 모두 조우추취(走出去, 해외진출) 전략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방정부로서는 인진라이(引進來, 외자유치) 전략 역시 중요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중국의 동북 지역에서 한국 및 다국적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북한 경제의 개방과 안정을 중국이 도모해야 한다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해야 한다.

또한 지지부진한 나진-하산 간 남북러 철도연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 차원의 전략적 이해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는 향후 극동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의 연계를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서 더욱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여기에 나진항개발이 북한과 중국 및 러시아 차원에서 양자 간 진행되는 입장이 아닌 다자간 협력 개발 사업으로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중러 간의 협력 모색이 필요하며, 이를 중국과 러시아 및 다국적 기업들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구성해야 한다.

여기에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GTI 핵심지역 간 경제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동 지역의 연구기관 간 GTI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해운항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며, 이를 GTI 사업으로 제시하여 의제화 하도록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두만강지역개발에 대한 기존의 한계를 벗어 날 수 있는 공동개발(자원, 환경보호 등)을 지향해야 한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진일보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의 조화로운 협력방안이 필요로 한다.

이미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G2로서 세계경제를 이끌어 갈 국가로 성장하였으나 향후

경제발전은 정치사회적 내부문제의 환경에 부딪칠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독자적인 세계전략을 수립할 정도는 아니지만 지역강국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제력 차원에서는 세계경제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통일한반도를 준비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세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전략적인 동북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P**

참고문헌

- 권영경(2007), “북중경협과 남북경협의 비교 고찰”. 한중사회과학학회 2007년 제2회 국제학술발표대회 자료집.
- 김원배 외(2006), 『중국 동북3성 개발이 북중 접경지역 산업 및 기반시설개발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토연구원.
- 김영근(2008), “중국의 대북투자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 배중렬(2006), “북·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변화 전망”. 『수은북한경제』, 겨울호.
- 배중렬(2008),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 『수은북한경제』, 가을호.
- 양문수(2009), “남북 경협 위축과 활성화 과제”. 『통일경제』, 여름호, 통일연구원.
- 우상민(2005), “북중 경제 관계 현황과 전망-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중심으로-”. KORTA.
- 이영훈(2006), “남북경협의 현황 및 평가”. 『금융경제연구』, (281), 한국은행.
- 이중운(2009), “북·중 접경지역 중국업체의 대북 거래관행 분석”.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윤승현(2008), “중국 두만강지역 경제 변화 분석: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위험관리』, 9(2), 한국수출보험학회.
- 조명철 외(2006),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수영(20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통일연구원.
- 통일연구원(2008), 『중·북 분야별 협력 현황과 북한의 변화 전망』.
- Nanto, Dick K. and Emma Chanlett Avery(2008). “The North Korean Economy: Overview and Policy Analysis.” CRS Report, April.

吳昊(2009), “中國吉林省と北朝鮮の經濟貿易關係の現状と張望”. 『Erina Report』(88), 環日本海經濟研究所

保建雲(2007), “中國與朝鮮雙邊貿易的發展特點, 比較優勢及問題分析”, 社會科學輯刊, (6)

朝鮮經濟問題研究 課題組(2008), 『朝鮮經濟問題研究』, 遼寧省金融學會.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KORTA,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중국해관총서(Customs General Administratim PRC)

중국상무연감(中國商務年鑑)

길림성통계연감(吉林省統計年鑑)

연합뉴스

연변일보(延邊日報)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The Status Quo of Sino-North Korean Trade and It's Implication for Inter-Korean Trade

| 평화재단 제38차 전문가포럼 |
중국의 장길도 개발계획과 북중경협의 향방

YOON Seung Hyun²²⁾

NOTES

Recently Sino-North Korean trade grows rapidly. Since the beginning of 1990's, China has been the most important trade partner of North Korea holding more than half of the foreign trade of North Korea (total trade excluding the trad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ince 2005. In 2008, the proportion even increased to 73%. So the Sino-North Korean trade relationship passed over the time from a simple exchange and Chinese support for North Korea, into a new stage of institutional cooperation which will extend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substantially.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ment of Sino-North Korean trade relationship risk making North Korea economy subordinate to China excessively. It will bring a great effect when China exercises an influence for any reason. As a result it will make positive or negative effect not only on North Korea economy but also on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stead of taking precautions against the development of Sino-North Korean trade relationship, South Korea should make more efforts to complement the Sino-North Korean trade relationship. Finally the cooperation of the three countries would increase the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could be formed naturally, too.

Keywords: Sino-North Korean trade, three province in northeast China, border trad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22) Jilin University of China, E-mail: chinayoon@naver.com

| 평화재단 제38차 전문가포럼 |
중국의 장길도 개발계획과 북중경협의 향방

NOTES